



조선산업은 수출, 고용창출 등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강할 뿐 아니라 사회공헌에도 있어서도 타 산업을 압도한다. 100만 평의 부지에 5개의 도크를 갖추고 있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조선산업, 전남의 경쟁력이다

### 작년 25억 달러 수출...새 성장엔진 부상 대한조선 등 잇따라 건설...고용효과 10만 철강·기계·전자 등 연관산업 시너지효과

신(新) 해양시대를 맞아 전남지역이 조선산업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7월 가동에 들어가는 대한조선선을 비롯, 서남해안 일대에 신안중공업 등 중소형 조선소들이 잇따라 건설될 예정이어서 세계를 향한 '조선 전남'의 앞날을 밝게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일본을 누르고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데다,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또한 막강해 지역민들이 조선산업에 거는 기대

는 적지 않다. 한국은 지난해 1천450만CGT(보정 총톤수) 규모의 선박을 수주해 3년 연속 세계 1위에 올랐다. 이는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38%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출규모 면에서도 반도체·자동차 등에 이어 6위에 그쳤으나, 211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해 우리나라 전체 흑자규모(167억달러)보다 많은 흑자를 냈다. 전남지역에서도 현대삼호중공업 등을 포함한 중소형조선소가 지난해 25억달러를 수출, 새

로운 성장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같은 외형 뿐만 아니라 조선산업은 석유화학 등 잠저산업과는 달리, 전·후방산업을 많이 거느리고 있어 고용효과 또한 타산업을 능가한다. 세계 최고 규모의 조선소로 손꼽히고 있는 울산 현대중공업의 경우 직접고용 2만6천명과 3천여개 협력업체 직원, 연관산업 종사자와 가족 등 조선 관련 인력만 20만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경남 거제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직·간접 고용인력만 2만5천명에 달한다. 이는 거제시 인구 20만명의 45%에 달한다. 여기에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7만명까지 합치면 80%에 육박한다. 대한조선도 오는 2012년 2차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직·간접 고용인력 6만명, 가족 3만~4만명을 합쳐 10만여명에 달하는 신도시 하나를 거뜬히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조선산업이 세수, 농수산물 구입비용, 기부·후원 등 다방면에 미치는 사회공헌도도 엄청나다.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의 급여 및 상

여금은 매달 900여원에 달하고, 지방세 납입액은 연간 150여원을 웃돈다. 거제시를 포함한 경남지역에서 사들인 농수산물 구입비용만 연간 172억원, 기부·후원금도 16억원에 이른다.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납입한 지방세는 116억원으로, 거제시 전체의 7%를 차지했다. 2만3천여명의 직원이 구내식당에서 하루 소비하는 쌀은 200가마(20kg짜리), 돼지갈비가 메뉴일 때는 하루 65마리의 돼지가 소비될 정도다. 지난해 13조원의 매출을 올린 현대중공업은 울산시에 6개의 복지회관을 건립해 매달 7천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스포츠 등 350여개의 프로그램을 제공,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해오고 있다. 대주그룹 조선사업부문 박재영 부회장은 "해운 선복량의 증가와 노후선 교체시기가 맞물려 조선산업의 전망은 아주 밝다"면서 "서남해안에 조선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전남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뮤지컬 '에비타' 광주공연  
3월 9일(금)~11일(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공연문의: (062)220-0541, 1588-0766

##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설 민심' 들여보니...

# "민생 파탄, 분노 넘어 체념"

### "경제 쟁겨달라"...통합신당 기정사실화

설 연휴 기간 지역구를 돌아본 광주·전남지역 여야 의원들은 '민생 파탄'에 고개를 틀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의원들은 또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경제 개편과 관련, '통합신당' 창당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은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지역민들의 우려가 컸다"며 "그러나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 않느냐'며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한 "지역 주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냉담한 반응속에서도 통합신당이 이뤄진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영광·함평)은 "농민들은 과연 농업의 미래가 있는냐는 점에 대해 절망감을 나타냈으며 특히 한미 FTA가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감이 높았다"고 농민들의 상실감을 전했다.

이 의원은 "지역민들은 통합신당 출범을 기정사실화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전하는 한편, "다만 통합 과정이 별다른 문제없이 잘 될 것이라는 점과 통합신당이 경쟁력있는 후보를 낼 수 있을 것인지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중도통합모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양형일 의원(광주 동구)은 "이번 설 경기는 사상 최악이었다는 것이 재래시장 상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또한 "정부에서는 개인소득 2만불, 수출 3천억불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생의 현상은 한숨으로 가득했다"며 "참여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욕탕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나눴다는 양 의원은 "지역민들은 통합신당 출범이 늦어짐에 따라 대선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냐는 의견들

을 나타냈다"며 "특히 이명박 전 시장의 X파일 등 한나라당의 분열 가능성에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민생정치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홍 의원(광주 북을)은 "양극화로 인한 민생의 파탄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역 재래시장에서 옷 가게를 하는 상인은 '하루에 옷 한벌 팔기가 어렵다'며 하소연했다"며 "정치적으로 한없는 무력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社告

## 제13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23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유종선 교수 '과민성 장 증후군 예방·치료'

광주일보사와 전남대병원은 오는 23일 '제13회 테마가 있는 시민 건강강좌'를 개최합니다. 시민강좌는 전남대병원 전문 의료진이 직접 나서 강연하고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강좌는 '과민성 장 증후군 의 치료'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강사는 전남대병원 소화기내과 유종선 교수로, 과민성 장 증후군의 발병원인·증상 진단법·치료 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상담을 해 줄 것입니다. 강좌의 내용은 오는 27일(화요일)자 광주일보에 게재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 제: 과민성 장 증후군의 치료
- 강 사: 유종선 전남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전남대병원 소화기센터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미국 아이오와대 연수  
-일본 국립암센터 연수  
-미국 로체스터대 연수

- 일 시: 2월 23일(금) 오후 2시
- 장 소: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 문 의: 전남대병원 홍보실(062)222-5092  
교육연구실(062)220-6082

光州日報社·전남대병원

나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남자!  
가스활명수같은 남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가스 성분으로 시원하게 소화시키고-  
11가지 생약성분으로 부드럽게 소화시키고-  
김동원도 가스활명수도 만능 엔터테이너답죠?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sup>큐</sup>

100년의 사람 - 부채표  
동화약품

김동원